

# “친일 작가가 만든 전봉준 장군 동상 철거하라”

### 조각가 김경승씨 정읍 황토현 전적지 장군 동상·부조물 제작 민족문제연구소 “동학 농민군 정신 표현된 조형물 설치해야”

“친일파의 손에 제작된 황토현 전봉준 장군 동상, 이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정읍지회는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전북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과 배경 부조물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이 만든 것”이라며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김경승(1915-1992)은 1934년 국립 도쿄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했고, 이후 조선을 대표하는 조각가로서 활동했다.

그는 1942년 6월3일자 매일신보에 “일본인의 의기와 신념”을 표현하는 데 새 생명을 개척하는 대동아전쟁 하에 조각계의 새 길을 개척하는 것에 미력이나마 다하여 보겠습니다”라는 친일 내용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 친일미술인 단체인 조선미술가협회의 평의원과 조각분과 위원을 맡기도 했고,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어 해방 이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 참여하지 못했다.

연구소는 “적양적애, 보국안민의 기치로 일본군과 목숨을 걸고 싸운 동학농민군 대장의 동상이 몸과 정신을 일본에 의탁해 버리고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인식한 친일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봉준 장군이 아신다면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실 것”이라며 “이제라도 시민과 국민의 뜻을 모아 전봉준 장군의 본 모습을 새로이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봉준 장군상이 맨상투로 표현되어 장군다운 풍모보다는 서울로 압송될 당시 죄수의 모습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었다.

또 장군상 뒤편 배경이 되는 동학군을 표현한 부조물 또한 당시 비장한 각오로 혁명에 참여했던 농민군들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친일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철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면서 “하지만 황토현 전적지가 문화재청의 사적 제295호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 있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친일파가 제작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1년)로 지정된 만큼 관계기관과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선 당장 정읍시 단독으로 동상을 철거할 수 없지만 현재 황토현 전적지 일원이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문화재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토현 전적지는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에 있는 야트막한 봉우리로(해발고도 70m)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관군과 처음으로 싸워 대승(5월11일)을 거둔 곳이다. 1981년 12월10일 문화재청 사적 제295호로 지정됐다. 최근 정부는 해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올해 귀금속보석 우수업체 (주)헤리노브 선정

익산시는 (주)헤리노브를 올해의 귀금속보석 우수제조업체로 선정했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익산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귀금속보석 공업단지내 위치한 헤리노브를 우수제조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귀금속보석 업체를 우수제조업체로 선정하고 3년간 유효한 우수제조업체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우수제조업체 선정에 앞서 지난 달 15일부터 모집공고를 진행한 후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시설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실시했다.

또 시제품개발비 지원, 귀금속 잡지 카

탈로그 게재 등 지역향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우수제조업체로 선정된 헤리노브는 지난 2011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아이디엔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얼리 기업으로 출발했다.

지난 2014년 ‘(주)아이디엔제이익산’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제조·개발관련 설비투자를 시작한 후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했다.

또 지난 2015년 주얼리 관련 다수의 실용신안 출원, HERINOV(헤리노브) 상표를 등록해 프리미엄 키즈 주얼리에 특화된 회사로 성장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정읍시, 도로변·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10개소 설치

정읍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변과 횡단보도 등 10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사진)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현재 5개소에서 운영 중인 기존의 접이식 그늘막의 단점을 개선했다. 접이식 그늘막은 폭염시 즉각 활용이 어렵고 태풍·강풍시 인력을 투입해 접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을 이용해 기온·풍량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차양시설이다. 이 그늘막은 기온이 20도 이상, 바람 세기가 초속 7m 이하 때 자동으로 가동된다. 또 초속 7m이상의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일몰 후 어두워졌을 때는 자동으로 접힌다.

스마트 그늘막은 여름 한낮에는 좌우로 펼쳐 10평 이상의 시민이 동시에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설치 면적이 크지 않아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발효마을 축제’ 지역 화합·가치 창출

전북 ‘1시군 1대표 축제’ 선정 전통계승·향토자원 특화 사업 6월 7~8일 지내마을 등서 개최



지난해 열린 순창 발효마을 축제에서는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이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을 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발효마을 축제로 지역 화합과 가치 창출을 이어 나간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전북도가 주관한 1시·군, 1대표 작은축제에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가 선정돼 3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주민 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북도가 기획한 행사이다.

군은 이번 작은축제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의 갈증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발효마을 축제는 2015년 24억원에서 2016년 100억원대로 4배 이상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는 자연발효 식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

군은 ‘건강한 슬로푸드, 행복한 삶’을 테마로 섬진강의 자연환경을 융합해 깨끗하고 건강한 발효 순창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적성 지내마을과 강경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며, 자연발효 식초보시기, 수제맥주 만들기, 연잎머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슬로푸드 시식·시음, 연꽃할머니 이야기길 탐방을 포함한 섬진강 생태 탐방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훈 적성슬로푸드공동체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이 화합하고 도농 교류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민 기자 jyg@

## 남원시, 보행·교통안전 도모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남원시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해 시민들의 보행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시행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나선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도 보조자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교통문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군산시, 발작물 재배농가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

군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발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용 스프링클러 시설을 지원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발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56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발작물 재배 농업인으로 노지용 스프링클러, 물통, 모터, 기타 부속 등이 지원된다. 단,

비닐하우스용이나 인삼물 재배용 또는 시설 보관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면적 규모가 영세한 농가, 고령농, 여성농, 친환경 인증농가, 주변농가 활용도가 많은 농가 순이며, 대상 농가에는 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